

「김현감호」에 나타난 인정과 환대

이금희*

〈차 례〉

- 1. 머리말
- 2. 「김현감호」에 나타난 인정(認定)과 살림의 구조
- 3. 경계를 넘고 자기를 성찰하는 자의 환대
-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현감호」를 이항 대립의 구조로 설명하고, 그 심층적 의미를 이해한 뒤 지금 여기서의 자기 이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김현감호」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세계의 충돌과 그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보고, 인정과 살림 여부의 이항 대립 구조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질적 존재가 만나 살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이런 인정과 환대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 된다. 「김현감호」

* 영남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에서 보이는 타자에 대한 인정과 환대는 스스로 경계를 넘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 아가씨의 죽음은 호랑이와 왕이라는 적대관계를 바꾸기 위한 주체의 숭고한 선택이고, 생명의 사멸성을 극복하는 위대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김현감호」에서 보여주는 인정과 환대의 태도는 노마드적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꼭 필요한 삶의 자세이다.

주제어: 김현감호, 인정, 살림, 이질성, 환대, 경계, 성찰, 이방인, 희생, 선택

1. 머리말

「김현감호(金現感虎)」는 승려 일연의 저서 『삼국유사』 권5에 실려 있다. 「김현감호」는 호랑이 아가씨가 인간이 되어 김현을 만나 사랑을 하고, 자신들 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죽는, 희생의 사랑 이야기다. 이 텍스트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키워드는 ‘사랑과 희생’이다. 차이와 경계를 뛰어넘는 남녀의 사랑, 외부적 압력으로 인한 사랑의 비극적 결말, 이별의 종교적 초월이라는 일반적인 사랑 드라마의 기본 구조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과 좌절, 사회적 악행을 씻어내는 희생 의식, 살아남은 자의 보은 등의 각기 다른 이야기소들이 서로 얹혀 있다.

그동안 「김현감호」에 대한 연구는 『삼국유사』에 함께 실려 있는 「신도징(申屠澄)」과의 비교분석이나 장르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많았다. 장효현¹⁾은 「김현감호」가 설화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아직 소설이라 할 수 없는, 설화와 소설의 중간 단계쯤에 있는 작품으로 보았다. 그

1) 장효현, 「전기소설의 장르 개념과 장르사의 문제」,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pp. 51~71.

에 비해 임형택²⁾은 「김현감호」가 신분의 모순과 갈등을 보여주는 전기 소설로 보았고, 임갑량³⁾은 「김현감호」를 당대 왕위 계승 상의 분쟁과 사회의 문제 의식을 전기소설의 기본 성격을 갖추어 창작한 개인의 작품으로 보았다.

최근에 들어 호녀와 인간의 관계의 의미, 호녀 역할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늘어났다. 鄧雨辰⁴⁾은 호녀의 형상을 분석하면서 호녀가 짐승성과 인간성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수성-인간성’의 갈등 상황에서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신성성까지 획득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성성 부여는 호녀의 죽음을 불교적으로 의미 부여하려는 저자 일연의 집필의도라 보았다.

김경미⁵⁾는 일연이 「김현감호」를 쓰면서 불교적 색채를 넣었고, 특정한 젠더적 인식을 가미하였다고 보았다. 일연이 김현이 관직을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호랑이 아가씨의 희생 덕분으로 보지 않고, 부처에 대한 김현의 기도의 결과라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남자와 가족, 국가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는 여성에게 높은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연의 평가를 두고 김경미는 일연 자신 혹은 그 당시의 ‘가부장성이 강화된 젠더화된 플롯’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김현감호」의 내구 구조적 분석은 없이 일연의 편집과 평가에만 초점에 둬으로써 호녀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 분석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김기호⁶⁾는 선도산을 중심으로 살았던 원주민들이 신으로 모신 원형

2)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회연구』 제5집, 1981, p. 90.

3) 林甲娘, 「김현감호의 전기성과 역사 현실적 의미」, 『신라학연구』 제2집,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1998, pp. 116~117.

4) 鄧雨辰, 「「김현감호」의 호녀 형상 연구」, 고려대 국어대학원, 2014, pp. 37~41.

5) 김경미, 「가부장적 서사 장치의 강화, 〈「김현감호」〉의 플롯 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제45집, 2019, pp. 221~249.

6) 김기호, 「「김현감호」 호랑이 아가씨의 모성(母性) 계승과 창조성」, 한국청소년문화학회, 『청소년과 효문화』, 제33집, 2019, pp. 31~67.

의 호랑이 여산신이 「김현감호」에 창조적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보았다. 선도산 정상에 있는 마애여래삼존입상이 불교적 상징이고, 성모사가 박혁거세의 시조모를 모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산령각의 호랑이가 그곳 사람들이 오래도록 모셨던 어머니 산신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원주민으로부터 신으로 모셔졌던 여산신은 「김현감호」의 포용력 있고 지혜로운 어머니 호랑이를 통해 계승되고, 「김현감호」에 등장하는 호랑이 아가씨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다. 호랑이 아가씨는 당시의 수직적 위계적 폐쇄적 전통을 부정하고 스스로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성을 부여하는 ‘살림의 긍정’을 보여주는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호랑이 아가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었다.

본고에서는 「김현감호」의 내용을 구조주의적 이항 대립으로 분석하여 그 심층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항 대립(二項 對立)은 의미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의 쌍으로, 텍스트에 대한 구조주의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전형적으로 두 대립쌍에서 하나는 다른 것에 대한 지배적인 역할을 가정한다. 이렇게 텍스트 분석에서의 이항 대립을 찾게 되면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을 찾게 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김현감호」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핵심 질문은 ‘이질성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상생과 살림은 어떻게 가능할까?’가 될 것이다. 이항 대립에 따른 구조 분석은 위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적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심층적 구조와 작동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이항 대립적 구조 분석을 토대로 현재적 의미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텍스트를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을 경험해 보고자 한다. 즉 「김현감호」라는 텍스트를 통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개인 한계의 초월, 희생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2. 「김현감호」에 나타난 인정과 살림의 구조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철저하게 텍스트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리콰르에 의하면, 글쓰기의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로부터, 최초의 청자가 받아들였던 의미로부터, 그리고 발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즉, 담화가 텍스트로 고정되면서 텍스트는 저자나 독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저자, 시대 및 사회와 철저하게 분리하여 텍스트가 가지는 자체 내적인 구조 속에서 모든 의미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독자로서 텍스트의 정지 상태에 남아 텍스트를 세계가 없고 저자가 없는 사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즉 텍스트를 그 내부 관계들로, 그 구조만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 다음 그 정지 상태를 들어 올려 텍스트를 살아 있는 의사 소통으로 복원시켜야 한다.”⁷⁾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김현감호」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김현감호」의 내용 전개

- ① 김현이 홀로 밤늦게 탑을 돌았다.
- ② 한 호랑이 아가씨도 늦게 함께 탑을 돌았다.
- ③ 둘이 서로 통정하였다.
- ④ 김현이 호랑이 아가씨의 집에 따라갔다.
- ⑤ 호랑이 아가씨와 노파가 오빠를 피해 김현을 숨겼다.
- ⑥ 세 호랑이가 사람 냄새를 맡고 흥분을 한다.
- ⑦ 노파가 세 호랑이를 꾸짖는다.

7) 폴 리콰르 지음, 박병수·남기영 편역, 「텍스트란 무엇인가」,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pp. 172~173.

- ⑧ 하늘에서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벌을 주겠다고 겁을 준다.
- ⑨ 호랑이 형제가 도망간다.
- ⑩ 다음날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 ⑪ 왕이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2급의 작을 주겠다고 공지하였다.
- ⑫ 호랑이 아가씨가 김현의 칼로 스스로 죽었다.
- ⑬ 김현은 호원사를 짓고 호랑이의 은혜에 보답했다.
- ⑭ 김현이 죽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글로 완성하였다.

2) 이항 대립 구조 분석

「김현감호」 텍스트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認定) 여부와 살림 여부이다. I 과 II를 나누는 인정은 존재에 대한 타자의 인정을 의미하고, III과 IV를 나누는 살림은 자아와 타자 모두의 생명에 해당된다. I 과 II를 나누는 인정 여부는 내러티브를 이끄는 주된 동력이고, III과 IV는 인정이 낳은 부수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정(認定)이라는 기준으로 인물들의 행위를 구분하고 그 결과로 살림과 죽임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구조, 인정(-)와 인정(+)

‘인정 욕구’는 A.H.매슬로의 5단계 욕구 중 ‘존중의 욕구(need for esteem/respect)’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정, 즉 존중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물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이 아니다. 인정은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존재함의 가치로 수용하는 것이고, 존재의 소중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게 되면 스스로 높은 자기 존중감(self-respect)을 가지게 한다.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며, 독립

적이며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주체성과 능동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정’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표 1〉 「김현감호」 이항 대립 구조 분석

I 인정(-)	II 인정(+)	III 살림(-)	IV 살림(+)
①김현이 홀로 밤 늦게 탑을 돌 ②호랑이 아가씨가 늦게 탑을 돌 ⑤세 호랑이가 김 현을 잡아먹고자 함 ⑥죄를 묻겠다는 하 늘의 목소리가 들 림 ⑨왕이 호랑이를 잡 으라 명을 내림	③김현과 호랑이 아 가씨가 서로 통정 함 ④노파가 김현을 숨김 ⑧김현이 호랑이 아 가씨의 계획을 울 면서 받아들임 ⑩김현이 호랑이 아 가씨가 있는 숲속 으로 들어감	⑫호랑이 아가씨가 스스로 김현의 칼 로 죽음	⑦세 호랑이가 도 망감 ⑪호랑이 아가씨가 상처 치료법을 알 려줌 ⑬김현이 벼슬을 얻 음 ⑭김현이 호랑이 아 가씨의 저승길을 인 도함

「김현감호」에서 인정(-)에 해당하는 것은 김현이 탑을 도는 것과 호랑이 아가씨가 탑을 도는 것, 호랑이 형제가 김현을 잡아먹으려 한 것, 호랑이 족속을 벌하겠다고 하는 하늘의 목소리와 호랑이를 잡으면 직급을 주겠다는 왕의 명이다.

먼저 첫 번째 인정(-)에 해당하는 김현과 호랑이 아가씨의 탑돌이를 살펴보자.

신라 풍속에 해마다 2월이 되면 초파일에서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자와 여자들은 흥륜사의 전탑을 도는 복회(福會)를 행했다. 원성왕 때에 낭군(郎君) 김현이 있었는데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홀로 탑을 돌았다. 그때 한 처녀도 엽불을 외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마음이 움직여 눈을 주었다.⁸⁾

‘복회(福會)’는 절에서 탑 주위를 돌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고, 각자의 소원을 비는 행사를 의미한다. ‘서울의 남자와 여자들’이 흥륜사의 전탑을 돌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탑돌이 행사는 종교적 성격, 개인 기구적(祈求的) 성격과 함께 젊은 남녀에게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깊은 밤에 ‘쉬지 않고 홀로’ 탑을 도는 김현은 어떤 심리 상태일까? 아직 충족되지 않은 어떤 갈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충족의 측면에서 보면 김현과 처녀의 입장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호랑이 아가씨의 경우 본연적인 수성(獸性)을 버리고 여자 인간의 모습으로, 일반 속계가 아닌 불계의 공간에서, ‘엽불을 외면서’ 탑을 도는 행위는 김현의 갈구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한 느낌을 준다. 주어진 삶의 조건의 몇 가지 충위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행위는 그만큼 간절한 갈구와 욕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8) 일연 지음, 이재호 번역, 「김현감호」, 『삼국유사』 2, 서울출판사, 2007, pp. 360~369. 이하 별도 출처 밝히지 않음.

그런 면에서 깊은 밤까지 탐돌이를 하는 김현과 호랑이 아가씨는 둘 다 자신들이 원하는 충족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상태 혹은 세계로부터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 세계의 타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다.

김현이 호랑이 아가씨 집에 갔을 때 오빠 호랑이들이 김현을 잡아먹고자 하는 행위도 인정(-)에 해당한다. 같은 호랑이 족속이지만 노파의 태도가 걱정과 우려를 담은 타자에의 수용과 인정인 것에 비해, 오빠 호랑이들은 바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한다.

잠시 후에 범 세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들어오더니 사람과 같이 말을 했다.
“집에서 비린내가 나는구나. 요깃거리가 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닌가?”

범 세 마리에게 이질적인 ‘비린내’ 즉, 존재는 곧 ‘요깃거리’이다. 상대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해, 포용이 아예 없다. 상대는 그저 먹을거리일 뿐이다. 이로써 호랑이 족속과 인간 족속의 관계가 긴장적인 적대관계였음을 알 수 있고, 아마도 이는 오랜 인정(-)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현감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인정(-) 상태는 하늘의 목소리와 왕의 명령에서 볼 수 있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을 징계하겠노라.”
세 짐승은 이 소리를 듣자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안에 들어와 사람을 해함이 너무 심하니 감히 당해 내지 못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을 내렸다.
“범을 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다.”
이에 김현이 대궐로 나가 아뢰었다.

“소신이 범을 잡겠습니다.”

왕은 벼슬부터 먼저 주고 그를 격려하였다.

하늘은 호랑이들의 악을 징계하기 위해 호랑이 족속 중 한 마리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세 짐승이 모두 근심하는 것을 보면 호랑이 족속에게 ‘하늘’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왕 또한 ‘사람을 심하게 해하니’ 범을 잡으라 명령을 내린다. 왕은 범에게 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2급의 벼슬을 하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의 소유자이다. 하늘과 왕에게서 호랑이 처지에 대한 이해나 인정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늘과 왕은 호랑이의 인정 또한 바라지 않는다.

그에 비해 인정(+)에 해당하는 것에는 김현과 호랑이 아가씨의 통정한 것, 노파가 김현을 구석진 곳에 숨긴 것, 김현이 호랑이 아가씨의 계획을 울면서 받아들인 것, 김현이 숲으로 호랑이를 찾아간 것이 있다. 김현과 호랑이 아가씨의 통정은 일종의 동질성에 의한 끌림이라 할 수 있다. 밤늦게까지 탐돌이를 하는 이들이 가지는 동질성은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낯선 존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끌림이 필요하고, 끌림이 행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상대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처녀가 돌아가려 하자 김현이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으나 김현은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 기슭에 이르러 한 초가집에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처녀에게 물었다.

“함께 온 이가 누구냐?”

처녀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늙은 할미가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긴 하나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 일이므로 나무랄 수도 없다.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려우니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김현이 호랑이 아가씨의 거절을 마다하고 ‘서산 기슭’으로 들어섰다. 그때 늙은 할미가 걱정을 한다.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늙은 할미는 먼저 김현의 위험을 걱정한다. 현재 벌어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김현을 나무라거나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봐 은밀한 곳에 숨기려 한다. ‘없는 것이 더 나은 존재’가 자신의 공간에 나타나 자기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 때 이런 포용심을 내기란 쉽지 않다. 낯선 것에 대한 수용과 보호는 늙은 할미의 인정(+)의 폭이 넓고 지혜로운 것임을 보여준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함은 인류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대개 몇몇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잘 지냈으니 진실로 하늘이 준 다행함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 한 세상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
 “낭군은 그런 말 마시어요. 이제 제가 일찍 죽게 됨은 하늘의 명령이며 또한 제 소원입니다. 낭군께는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번 죽어 다섯 가지의 이로움이 오는데 어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신다면 낭군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겠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 울면서 작별했다.

하늘의 명령에 호랑이 아가씨가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을 때 김현은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다. ‘대개 몇몇한 일은 아니지만’ ‘진실로 하늘이 준 다행함’인데 어찌 배필의 죽음으로 벼슬을 바라겠느냐며 반대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호랑이 아가씨의 계획대로 하기로 하고 울면서 작별한다. 이 부분 또한 인정(+)의 상황이다. 김현에게 호랑이 아가씨의 상실은 하늘이 내린 행복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고자 하는 김현이 호랑이 아가씨의 희생을 수용한 것은 그의 말대로 ‘한 세상의 벼슬을 바라’서

가 아니라 호랑이 아가씨가 내린 선택의 숭고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김현이 다음 날 숲으로 들어가 호랑이 아가씨를 만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인정(+)라 볼 수 있다. 호랑이 아가씨에 대한 김현의 인정은 부부의 연을 맺는 긍정적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정작 배필의 죽음까지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같은 인정이지만 상반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이 둘 모두 호랑이 아가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그의 결정과 선택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아와 타자의 동등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갈망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존재를 수용하는 인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둘째 구조, 살림(-)과 살림(+)

이항 대립 구조의 또 다른 항목으로서 ‘살림’을 살펴보자. ‘살리다’는 ‘잃어 가던 생명을 다시 지니게 하다’의 뜻을 지닌다. 이 단어는 ‘구명하다, 구원하다, 구제하다’와 유사관계에 있고, ‘죽이다’와 반의관계에 있다. 따라서 살림(-)은 죽임이고, 살림(+)는 생명을 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김현감호」에서 살림(-)에 해당하는 것은 유일하게 호랑이 아가씨가 김현의 칼로 스스로 죽는 것이다. 호랑이 아가씨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낭군에게 경사이고, 우리 일족의 복이고,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고, 하늘의 명령’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한번 죽어 다섯 가지의 이로움이 온다고 말하지만 죽음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말은 의심이 든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무릇 삶을 희구하는데 어찌 호랑이 아가씨에게는 죽음이 소원이 되었을까? 그에 대한 답은 호랑이 아가씨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신다면 낭군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겠습니다.

호랑이 아가씨는 자신의 선택이 ‘좋은 과보를 얻는’ 것이라고 본다. 자신의 죽음이 만약 낭군, 가족, 나라, 하늘이라는 타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희생심이 강한 호랑이 처녀라도 쉽게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죽음을 통해 더 좋은 과보를 얻는 것, 이것은 오롯이 호랑이 아가씨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택한 호랑이 아가씨의 살림(-)는 여러 개의 살림(+)를 낳게 된다.

「김현감호」에서 살림(+)에 해당하는 것에는 세 마리 호랑이가 도망간 것, 호랑이에게 다친 이들을 치료할 방법을 알려준 것, 김현이 벼슬을 한 것, 김현이 호원사를 지어 호랑이 아가씨의 저승길을 인도한 것이 있다.

‘즐거 생명을 해하는’ 세 마리의 호랑이는 누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하자 ‘모두 기뻐하며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치며 달아난’다. 목소리 만으로도 근심에 가득 차게 만드는 하늘이라면 아마 언제든 호랑이 중 한 마리에게 벌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 벌을 피함으로써 세 호랑이는 살림(+)의 상태가 되었다. 호랑이 아가씨가 준 치료법으로 당시 호랑이 아가씨의 발톱에 다친 이들이 다 나았으며 이후로도 범에게 입은 상처에 그 치료법을 사용하여 상처를 낫게 하였으니 이 또한 살림(+)이 된다. 호랑이 아가씨의 죽음으로 김현은 2급의 벼슬을 얻었고(살림+), 곧 호원사를 지어 호랑이 아가씨의 저승길을 인도하였으니 비록 죽은 존재이지만 호랑이 아가씨의 입장에서는 살림(+)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이질성이 충돌하는 세상에서의 삶

일연은 「김현감호」의 내용을 소개한 후 아래와 같은 평을 실었다.

이 사적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절을 돌 때 사람을 감동시켰고, 하늘에서 불러 악을 징계하려고 하자 자신이 대신했으며, 신령한 약방문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구하고 절을 세우고 불계를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다만 짐승의 본질이 어진 탓에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부처가 사물에 감응함이 여러 방면이었으므로 능히 김현 공이 탑을 돌기에 정성을 다한 것에 감응하여 명익(冥益)을 갚고자 한 것뿐이다. 그때 복을 받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기리어 읊는다.

일연은 김현의 이적이 ‘정성을 다해 탑을 돌아’ 부처님이 그에 감응한 결과였다고 보았다. 텍스트의 맥락으로 보면 김현의 복 받음은 호랑이 아가씨의 희생의 결과임이 분명한데 그보다는 부처가 사물에 감응하는 한 방식이라 본 것이다. 불교도로서의 당연한 해석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텍스트에 대한 일연의 해석일 뿐이다.

리콤폴레에 의하면, 텍스트는 화자/저자의 의도, 최초의 청자가 받아들인 의도, 발화 당시의 여러 상황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의도가 텍스트를 쓴 저자의 의도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나 저자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임을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현감호」는 ‘이질성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상생과 살림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성성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질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끊어질 수 없다. 김현의 세계와 호랑이의 세계는 이질적 세계이다. 호랑이 세계와 인간 세계는

개인의 선의와 상관없이 관습적으로 제도적으로 터부시하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둘 다 타자에 대한 인식이나 관용은 없고, 그저 관습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존재, 사라져야 할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호랑이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접경에서는 언제나 살림(-)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먼저 왕의 세계를 보자. 왕은 권력을 가진 자로, 타자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이다. 그는 이질적 존재의 폭력성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도 있고, 엄격하고 처벌하고 보복할 수도 있다.

도덕이 모레스(mores)의 총합계 이상인 한, 즉 전통에 의해 공고해지고 동의에 근거해 타당성을 가지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관습과 행동 기준 이상인 한, 도덕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기꺼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약속을 하고 지킴으로써 행위가 초래하는 수많은 위험을 이겨내는 '선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중략) 이 도덕적 계명들은 행위와 말의 양식으로 타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직접 발생한다.⁹⁾

한나 아렌트는 사람이든 권력 시스템이든 '타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발생하는 선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약속을 하고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김현감호」에서 보이는 권력은 '용서'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왕은 단호히 처벌과 보복을 선택한다. 권력을 쥔 자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이방인이나 주변인이 취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진다.

세 호랑이의 태도도 왕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보복과 살상이 반복될 뿐이다. 물론 세 호랑이의 처지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요깃거리가 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닌가?”라는 말을 통해 그들은

9) 한나 아렌트 글, 이진우 번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9, p. 343.

다행의 경우에만 요깃거리를 만날 수 있는 존재다. 다행할 때만 먹을 수 있는 존재, 그들은 '서산의 기슭에 있는 초가집'에 사는 존재들이다. '마을'이 아니라 '산기슭'의 초가집에서 사는 호랑이들의 폭력성은 어쩌면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조건이고 그들이 타고난 품성이라 볼 수도 있다.

호랑이들이 살림(-)적 행동은 억압적인 사회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호랑이의 대척점에 왕이 있다. 왕은 자신들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존재들에 대한 냉혹한 내침, 선열한 선 굿기를 표방한다. 왕은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 경계에 대한 단호함, 내 울타리 안에서만 통하는 인정과 배려, 외부적 폭력에 대한 즉각적 보복,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호랑이들에게 항시적인 위협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 살다 보니 세 호랑이는 한 번도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경험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정받아 보지 못한 존재는 이질적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베풀 수가 없다. 인정받고 인정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만이 남게 된다. 세 호랑이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모두 '걱정'하다가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모두 기뻐하며 도망 가버'렸다. 겁 많고, 자신의 생존만 중요하게 여기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세 호랑이는 다른 세상과 화합하는 법을 익히지 못한 존재이다. 다른 세계는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 폭력적으로 들어갔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빠져나오는 세계일 뿐이다. 다른 세계는 항시 위협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대한 인정이나 배려, 베품을 고려할 수가 없다.

세 호랑이의 인정(-)의 자세는 그들이 인정(+)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호랑이 아가씨에 비해 폭력성이 많은 것은 또 다른 이유에 기인한다고 본다. 바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 호랑이는 자신

의 삶에 대한 성찰과 존재에 대한 진지한 탐구 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살상’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세 호랑이들의 행동은 ‘아이히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그의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¹⁰⁾’이라고 말한 한나 아렌트를 생각하게 한다. 파시즘의 광기이든 주어진 전통적 문화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성찰’하는 것뿐이다. ‘원래 호랑이는 다 그래, 이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맹목적이고 반복적인 악을 행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반성적 성찰은 자신의 삶과 행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 질문은 타자의 존재를 통해, 타자라는 텍스트를 통해 우회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타자와의 관계없이 자신을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호랑이들이 살림(-)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있는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 대상을 물건처럼, 사물처럼 대하는 자세로는 타자를 제대로 볼 수 없고, 타자를 보지 못한다면 성찰의 길로 들어서기가 어렵다. 그래서 호랑이 아가씨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세 분 오빠들이 멀리 피해 가셔서 스스로를 징계하신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¹¹⁾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호랑이 처녀는 자신의 희생을 제안한다. 이때의 징계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의미할 것이다. 나아가 행동의 변화까지 담보하는 것이다. 그냥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10) 한나 아렌트 글, 김선옥 번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p. 16.

11) 女謂曰. 三兄若能遠避而自懲. 我能代受其罰.

인간은 매일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관계의 그물망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한, 항상 죄를 짓기 마련이다. 따라서 죄는 항상 용서하여 잊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으로부터 부단히 인간을 해방시켜야만 인간의 삶은 계속 가능할 수 있다. 인간은 행한 것으로부터 서로를 해방시켜 줌으로써만 자유로운 주체로 남을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다시 시작하겠다는 부단한 의지를 통해서만 인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위대한 힘을 부여받을 수 있다.¹²⁾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다시 시작하겠다는 부단한 의지’를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과연 세 호랑이가 실제로 그리하였을까? 누이의 희생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켰을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성찰이 없는 두 세계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호랑이 아가씨는 성찰이 없는 두 세계의 경계에 존재한다.

3. 노마드 사회에서의 상생과 배려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의도를 지금 여기서 자기화하는 것”¹³⁾이다. 즉 텍스트의 문장들을 〈지금 여기서〉의 의미로 현재화하는 것이다.

〈현재화된〉 텍스트는 새로운 환경과 청중을 발견하고, 세계를 향하는, 그리고 주체들을 향하는 지시적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이 세계는 독자의 세계이고 이 주체는 독자 그 자신이다.¹⁴⁾

12)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pp. 336~337.

13) 폴 리콕르, 앞의 책, p. 182.

14) 폴 리콕르, 앞의 책, p. 183.

텍스트를 하나의 사물로 보는 구조 분석이 끝나면 독자는 다시 텍스트와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 의사소통의 주체는 현재의 독자이다. 독자는 읽기를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가 말하는 의미를 다시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내재화는 다른 말로 자기 이해라 할 수 있다. 리콥르에 의하면, “자기 이해란 곧 텍스트 앞에서(devant le texte)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이해는 텍스트를 통해 비로소 자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석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이해의 확장이다. 즉 독자 자신의 제한된 이해력을 텍스트에다 억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의 세계 혹은 사태에 자기를 맡기고서 텍스트로부터 훨씬 더 원대한 자기(un soi plus vaste)를 받아들이는 것이다.”¹⁵⁾

텍스트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텍스트 해석을 통해 우리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반성할 수 있고, 타자를 이해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자기를 만나게 된다. 이제 「김현감호」를 통한 자기 이해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자.

1) 노마드 사회의 이방인

현대는 “IT를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초연결사회”¹⁶⁾다. 한 마디로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다양하게 커뮤니케이

15) 폴 리콥르, 앞의 책, pp. 181~184.

16) 네이버 지식백과, 초연결사회라는 용어는 캐나다 사회과학자 애나벨 콰-헤세(Anabel Quan-Hasse)와 배리 웰만(Barry Wellman)이 2001년 처음 사용함.

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초연결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한정 짓던 공간의 한계를 무너뜨린다.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은 공간 중심의 관계를 탈공간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놀이터에서 놀았던 친구에서 인터넷 게임에서 함께 노는 친구를 가지는 시대요, 직장 내 동호회를 가입하던 것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동호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이다.

탈공간화는 예전의 인간관계가 가졌던 울타리를 일거에 무너뜨린다. 초연결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낮은 세상으로 이어지고, 관계의 지속성도 예전보다 유연해진다. ‘우리’의 범주가 다양한 층위로 나뉘고,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이질성의 세계, 우리는 선택과 상관없이 모두 이방인이 되어 가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방인은 항상 있었다.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는 세계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간 관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변화가 잦지 않은 시대에는 ‘우리 의식’ 또는 ‘동질성의식’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기본적으로 그 사회는 이방인을 터부시하였고, 때로는 내적 단결을 핑계로 이방인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런 시대에 이방인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계급 사회의 이방인에 대한 홀대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방인은 테두리 바깥의 존재로 취급받는다. 주류라 불리는, 혹은 주장하는 이들은 늘 이질적인 것에 대한 냉대와 선긋기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이방인은 자의와 상관없이 주변인으로 내몰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동남아 노동자나 결혼이주 여성들은 대표적인 이방인이면서 주변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빈곤 계층 또한 주류 속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면 우리 모두는 한편에서는 우리이고, 한편에서는 이방인이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존재할 확률이 더 많다.

이방인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식 체계를 확장시켜 준다. 이방인은 자기 이해에 꼭 필요한 타자이다. 우리는 이방인을 통해, 먼 우회의 길을 통해 참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이방인, 너도 이방인’이라는 인식은 다른 이방인에게 따스한 인정과 환대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런 면에서 이방인을 통해 새로운 자기 인식을 하며 상생의 방법을 보여주는 「김현감호」의 호랑이 아가씨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적 인물이라 볼 수 있다.

2) 살림과 생명의 새로운 시작

호랑이 아가씨는 이미 서산 기슭에서 흥륜사의 간극을 넘어 탈주를 해 본 존재이다. 이곳과 저곳을 함께 경험하면서 호랑이 아가씨는 저곳에도 삶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금은 다른 형상, 조금은 다른 행태를 가지고 있어도 저쪽 세계의 존재도 동일하게 소중한 생명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경계를 넘어선 자만이 자신을 가둔 울타리를 볼 수 있고, 울타리 속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호랑이성을 인간성을 통해 우회하여 들여다봄으로써 호랑이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알고 그 속의 동질성을 확인할 때 호랑이 아가씨는 빈 그릇의 인식 상태를 만들 수 있었다.

서른 개 바퀴살이 모여 바퀴를 만들지만,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수레가 굴러가듯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안이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듯이,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들지만, 안이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듯이, 유(有)로 만들더라도 무(無)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¹⁷⁾

17) 김재형, 고석수, 천바이비, 『아름다운 세 언어, 동아시아 도덕경』, 모시는사람들, 2021. p. 38. 11장 중 원문은 다음과 같다.(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爽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도덕경의 말처럼 경계를 넘고 반성적 성찰을 함으로써 호랑이 아가씨는 진심으로 김현이라는 이질적 존재를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호랑이 아가씨의 빈 그릇에 김현이라는 낯선 존재가 들어온다. 김현이 호랑이 아가씨만큼 이질성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대상에 대한 주관적 차별이나 분별심은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정을 통한 이후 호랑이 아가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서산 기슭의 낯선 세계를 거리낌 없이 진입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호랑이 아가씨는 김현의 태도에서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오롯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김현으로부터 받은 인정과 존중은 호랑이 아가씨로 하여금 더 큰 은혜, 즉 살림(+)을 베푸는 행동으로 승화된다. 김현이 벼슬을 얻도록 하는 것, 자기 종족을 보호하는 것, 자신으로 인해 상처 입은 이들을 배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인정과 살림의 선순환이라 볼 수 있다.

경계를 넘는 자에 대한 환대는 상대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한다.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긍정적 자존감을 낳는다. 자기 존재의 필연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행위 이전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존재의 가치를 밝혀주는 시그널이다. 이러한 인정과 존중은 존재를 주체로 만들어주며, 주체적 입장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선택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고른 숭고한 행동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 아가씨의 죽음은 ‘희생’이라기보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아주 부드러워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드러운 것만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 사회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해.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적에만 변하거든. 무시하고 적대시하면 더욱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르다는 것을 적대관계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¹⁸⁾”

무위당 장일순의 말이다.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적에만 변한’다는 말은 상대를 인정하고 용서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여기서 호랑이 아가씨가 왜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였을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호랑이 아가씨의 죽음은 적대관계를 벗어나 공생하기 위한 선택이다. ‘상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한 선택, 이것이 호랑이 아가씨의 선택이 담고 있는 가치이다. 호랑이 아가씨는 더 이상 남군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죽을 불쌍한 약자나 여성이 아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희생의 대상이 호랑이 아가씨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이 시대에 유효하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로 인해 많은 여성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호랑이 아가씨 또한 그런 인식 체계의 희생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랑이 아가씨를 볼 때 단지 ‘여자’라는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한 개체가 선택한 위대한 ‘행위¹⁹⁾’의 가치를 삭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호랑이 아가씨는 ‘여자’ 이전에 살아 있는 한 ‘존재’였다.

인간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보내는 삶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게 믿을 만한 법칙인 사멸성의 법칙을 따를 수는 있다. 행위 능력은 냉혹한 일

18) 김삼웅 지음, 『장일순 평전-무위당의 아름다운 삶』, 두레, 2019, p. 321

19) 한나 아렌트 지음, 『인간의 조건』, pp. 73~74.

한나 아렌트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노동하고, 작업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다른 인간과 행위하며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말하였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는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생존과 욕망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활동이다. 다수성(plurality)의 세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며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찾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이 바로 ‘행위’이다.

상적 삶의 자동적 과정을 중단시킴으로써 이 법칙을 방해한다. 반대로 일상적 삶은 생물학적 삶의 순환과정을 간섭하고 방해한다. 새로운 것을 해석하고 시작하는 능력, 즉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행위의 내재적 능력이 없다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생애는 반드시 인간적인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할 것이다.²⁰⁾

인간은 태어나 죽는다. 언젠가 죽어 사라진다. 이런 사멸성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우리가 사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상기시키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 ‘행위’는 냉혹한 일상적인 삶의 과정을 중단시킨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행위 능력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탄생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호랑이 아가씨는 냉혹하고 폭력적인 관계와 일상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살림과 생명의 시작을 만드는 행위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호랑이 아가씨의 죽음은 이질성을 수용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두 세계로 인한 불가항력적이고 비극적인 희생이었다. 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로 우뚝 선 자가 선택한 고결한 살림의 행위였다. 살아 있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던 호랑이 아가씨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포용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당당하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가 가장 만족스러운 방향을 선택하여 행동하였다. 그럼으로써 이전의 서로 죽이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인정하고 살림을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김현감호」의 호랑이 아가씨는 이제 억울함과 가여움의 희생양이 아니라 따스한 배려와 살림의 아이콘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20)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p. 343~344

4. 마무리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현감호」를 이항 대립의 구조로 설명하고, 그 심층적 의미를 이해한 뒤 지금 여기서의 자기 이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세계의 존재가 만나 살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경계를 넘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자세가 결국 이질성이 낳은 폭력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임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경계가 존재하는 사회는 경계를 넘지 않는 자는 살아가기 힘든 사회라 할 수 있다.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의 시대, 탈주와 월경이 생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구나 이방인이 되는 지금 우리는 다시 「김현감호」를 읽는다. 이질성의 경계를 넘고, 확장된 자기 이해에 도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스한 인정과 베품의 삶을 「김현감호」에서 읽는다. 호의, 친절, 자비, 사랑, 은혜, 환대를 베푸는 미래지향적 인간의 모습을 천 년이 넘는 옛 이야기 「김현감호」에서 발견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일연 지음, 김원중 번역, 『삼국유사』, 민음사, 2008.

2. 논문

김경미, 「가부장적 서사 장치의 강화, 〈김현감호〉의 플롯 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제45집, 2019, pp. 221~249.

- 김기호, 「김현감호 호랑이 아가씨의 모성(母性) 계승과 창조성」, 한국청소년호문화학회, 『청소년과 호문화』, 제33집, 2019, pp. 31~67.
- 임갑량, 「김현감호의 전기성과 역사 현실적 의미」,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신라학연구』 제2집, 1998, pp. 101~117.
-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제5집, 1981, pp. 89~104.
- 鄧雨辰, 「김현감호의 호녀 형상 연구」, 고려대 국어대학원, 2014, PP. 1~68.

3. 단행본

- 김삼웅 지음, 『장일순 평전 - 무위당의 아름다운 삶』, 두레, 2019.
- 김재형, 고석수, 천바이비, 『아름다운 세 언어, 동아시아 도덕경』, 모시는사람들, 2021.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욱 번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 폴 리코르 지음, 박병수 남기역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투고일: 2024. 1. 24 심사완료일: 2024. 3. 18 게재확정일: 2024. 3. 20)

이금희
소속: 영남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주소: 대구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186길 93
전자우편: lgh0228@hanmail.net

[Abstract]

Recognition and Hospitality Shown in “KimHyungamho”

Lee, Keum-Hee

In this paper, “KimHyungamho” in “Samgukyusa” was explained as a structure of binary confrontation, understood its deep meaning, and interpret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self-understanding here. Considering “KimHyungamho” as showing the conflict of different heterogeneous worlds and the attitude of life corresponding to it, the text was analyzed with a binary confrontation structure of recognition and living. In order for heterogeneous beings to meet and make a living(+),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itself is necessary above all else. The recognition and hospitality of the other in “KimHyungamho” can only be shown by those who cross the boundaries and reflect on their lives. In that sense, the death of the tiger girl is the sublime choice of the subject to change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tiger and the king, and it can be said to be a great act of overcoming the apocalyptic nature of life. The attitude of recognition and hospitality shown in “KimHyungamho” is an essential attitude of life even for modern people living as Nomad strangers.

Key words : KimHyungamho, recognition, housekeeping, heterogeneity, hospitality, vigilance, reflection, stranger, sacrifice, subjective choice